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주)

기업 정보	회사명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주)
	대표자명 요코타 토모히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19(정동) 배재정동빌딩
	주생산업 사무용 복합기 및 프린터, 오피스 솔루션 및 문서관리 서비스, 디지털 인쇄기
	홈페이지 https://fujifilm.com/fbkr

1974년 코리아 제록스로 시작한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주)는 현재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복합기, 각종 소프트웨어 등 각종 문서 관리와 관계되어 있는 제반 장치들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을 중국과 베트남을 생산 거점으로 하고 있다.



KC인증은 제품의 품질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

한국후지필름 비즈니스이노베이션(주)는 복합기, 프린터, 스캐너 등 KC인증 전기용품 안전 확인 품목으로 30개 이상의 모델을 보유 관리하고 있다.

KC인증 취득이 의무이기 때문에 취득한 목적도 있지만, 제품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KC인증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 되었다. “KC인증은 제품 안전성을 강화시키고 불량 제품 회수를 50%이상 감소 시켰습니다.” 이는 KC안전관리를 통해 제품의 품질 수준을 높였기 때문에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성과였다고 말한다.

취득한 KC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한국후지필름 비즈니스이노베이션(주)는 사내 품질인증팀에서 인증을 관리하는 직원을 상비하고 있으며, 매년 사내 또는 사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KC안전관리 교육은 올바른 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하며, 직원에게 올바른 안전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간 상호 인증을 통해 비효율적인 인증 업무 개선

복합기의 경우 KC인증의 안전확인 품목에 해당하여 일본보다 더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 복합기 제품 특성상 안전의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위해도가 현재 판단되는 것보다 낮다고 판단이 되며 공급자적합성으로 완화시켜주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시험성적서가 상호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제품인데도 위해도 판단이 다른 것은 물론 상호 인증이 되지 않아 이중으로 업무를 해야 하는 불필요한 프로세스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한국후지필름 비즈니스이노베이션(주)는 KC안전관리를 위해 지원 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없는데,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활용하지 못 한 것이라고 말한다.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계해주는 역할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제조는 물론 안전에 힘쓸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 정보를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